

세계기업 매출1위 <ExxonMobil> 200년 2106억달러

ExxonMobil이 GM(General Motors)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매출기업으로 부상했다.

미국 Business Week가 발표한 900대 기업의 2000년 실적조사에 따르면, ExxonMobil의 매출이 1999년에 비해 29% 증가한 2106억달러, 수익은 무려 102% 늘어난 15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매출·수익기업 자리를 동시에 차지했다.

매출 20대 상위기업(2000)			
(단위: 10억달러, %)			
순위	회사명	매출액	증감률 1999
1	ExxonMobil	210.6	29
2	Wall Mart	186.1	21
3	GM	184.6	5
4	Ford	170.0	6
5	GE	129.8	16
6	City Group	111.8	18
7	Enron	100.7	151
8	IBM	88.3	1
9	AT&T	65.9	5
10	Verizon	64.7	11
11	Phillip Morris	63.2	2
12	JP Morgan	60.0	16
13	BOA	57.7	12
14	SBC	51.4	4
15	Boeing	51.3	▽12
16	Texaco	51.1	43
17	Chevron	50.4	42
18	Duke Energy	49.3	127
19	HP	48.7	15
20	Kroger	47.5	5

수익 10대 상위기업(2000)			
(단위: 10억달러, %)			
순위	회사명	수익	증감률 1999
1	ExxonMobil	15.9	102
2	City Group	13.5	19
3	GE	12.7	19
4	Verizon	10.8	30
5	Intel	10.5	44
6	MS	9.9	14
7	Phillip Morris	8.5	11
8	IBM	8.0	5
9	SBC	7.9	21
10	BOA	7.5	▽5

Enron과 Duke Energy도 고유가를 배경으로 매출증가율이 각각 151%, 127%로 세자리수를 기록하며 순위가 대폭 상승했다.

반면, GM, IBM, AT&T, SBC 등은 모두 1-5%의 저조한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.

업종별로는 매출 상위 25개 기업 중 금융업이 7개로 가장 많았고, ExxonMobil을 비롯 Enron, Texaco, Chevron, Duke Energy 등 에너지 업종은 5개사가 포함돼 2번째로 많았다.

Enron은 매출이 151% 증가한 1007억달러를 기록해 7위를 차지했고, Texaco와 Chevron은 각각 43%, 42% 증가해 나란히 16·17위에 올랐다. Duke Energy는 127% 증가한 493억달러로 18위를 기록했다. 수익에서는 1999년 1위를 차지했던 GE가 19% 증가하는데 그쳐 3위로 내려 앉았다. 특히, MS(MicroSoft)는 1999년보다 3단계 추락해 6위에 머물렀다.

<화학저널 2001/4/16>